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심사일 : 2015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손영민

## 국문초록

#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손영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비행 발생의 예방과 비행의 지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어 이에 개입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사회학습이론의 주요요소인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변수로 보고되고 있지만 또래관계를 추구하는 청소년기 특성상 청소년 비행에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과 비행친구의 접촉을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 속에서도 개인의 비행수준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의 요인으로써 비행친구와의 교류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어린시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일생에 걸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며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오직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같은 다른 요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은 두 이론의 관계가 경쟁적인 것처럼 비교되어 이론적 검증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자기통제력을 통제하더라도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독립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의 안정성 또한 비행친구의 영향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통제력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친구의 영향이 있을 경우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의 자기통제력이 더 크게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처한 위험상황과 역경을 중재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내·외부로부터 획득한 보호요인이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산물인 적응유연성 개념을 바탕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보호요인으로써 조절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 수준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 경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서울아동패널 8차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항목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인원을 제외한 9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가족유형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비행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행친구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에 상관없이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의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영향, 비행친구와의 교류 속에서 보호요인인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모두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효과적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해서는 비행친구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비행친구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자기통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청소년 비행, 비행친구, 자기통제력, 조절효과, 적응유연성  
**학 번** : 2012-22945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
제1절 청소년 비행 .....	7
제2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사회학습이론 .....	9
제3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낮은 자기통제력 .....	14
제4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	19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5
제1절 연구모형 .....	25
제2절 연구가설 .....	26
제4장 연구방법 .....	27
제1절 분석자료 .....	27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29
1. 독립변수	
2. 종속변수	
3. 조절변수	
4. 통제변수	
제3절 분석방법 .....	34

제5장 연구결과 .....	36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	36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비행과 비행친구 유형 특성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40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제3절 가설검증 .....	44
1.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3. 비행친구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제6장 결론 .....	54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54
제2절 논의 .....	57
1. 비행친구와의 교류·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2.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제3절 연구의 함의 .....	60
1. 이론적 함의	
2. 실천적·정책적 함의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 .....	65
참고문헌 .....	67
부록 .....	73

## 표 목 차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6
<표 5-2> 조사대상자의 비행 유형에 관한 분포 .....	37
<표 5-3> 친한 친구들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 .....	39
<표 5-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40
<표 5-5>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43
<표 5-6>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	46
<표 5-7>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	48
<표 5-8>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51
<표 5-9> 자기통제력의 조건값에 따른 비행친구 교류의 단순기울기 검증 ....	53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5
[그림 5-1] 자기통제력에 따른 비행친구 교류의 영향 .....	52

## 부 표 목 차

<부표 1-1>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표 1-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표 1-3>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부표 2-1>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표 2-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표 2-3>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제1장 서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의 일탈행동 중 하나인 비행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나 그중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변수로 보고되고 있다(Agnew, 1991).

여성가족부(2012)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 경험률은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 3년 동안(2009년~2011년)의 청소년 비행 경험률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12년 전체 청소년들 중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24.6%, 음주 47%<sup>2)</sup>, 폭행 가해 경험 7.6%, 갈취 경험 3.9%, 왕따 가해 경험 6.5%, 가출 12.2% 등으로 나타나 2009년 청소년 비행 경험률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의 흡연율은 2.8%, 음주율 9.1%가 감소하였고 폭행 가해 경험 2.9%, 갈취 경험 0.9%, 왕따 가해 경험 3.9%, 가출 경험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50% 이상이 동성친구와 함

- 
- 1)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가 발간되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행태중 이용동반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조사를 참고하였다.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중 확률표집방식(다단층화집락표집)으로 추출된 15,487명이다.
  - 2)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흡연과 음주에 관한 자료는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통계를(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인용하였다.

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해 업소 이용에서도 동성친구와 함께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들보다 그들의 비행에 직접적 작용하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발달단계 중 가치관, 태도, 행동의 준거집단으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동에 있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어떠한 요소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부모보다 친구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친구의 영향력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보다 청소년의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준호 외, 2013).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으로 청소년은 개인의 준거집단에 속해 있는 또래가 비행과 일탈에 있어 우호적인 성향을 가질 때, 또래의 비행을 학습하게 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비행친구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이론들 중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온 대표적인 이론은 Akers(1985)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Akers는 사회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의 맥락으로 인해 비행과 동조행동이 학습되어 개인의 비행이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영향과 사회학습변수인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비행에 대한 개인의 정의, 비행으로 받는 보상의 크기, 모방 등의 과정을 통해 학습된 행동이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은 청소년 개인이 비행을 학습하고 강화하는 원리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Akers, 1998) 청소년 비행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이 지지 받게 되었다(Deptula & Cohen, 2004; De Kemp et al, 2006; Fergusson et al, 2007; Paternoster et al, 2013). 이론적 검증이 진행될수록 사회학습이론의 다른 변수보다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의 비행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접촉 변수는 사회학습이론의 중심 변수로 인식되어 갔다(Krohn, 1999; Pratt et al, 2010).

Akers의 사회학습이론 이후 비행친구를 통한 비행의 학습은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사회학습이론과 상반된 입장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바라보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이다.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아온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low self-control)으로 본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8세에서 10세 때 형성되는 자기통제력이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개인의 자기통제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으며 양육된 자녀들은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관점에서 비행친구 집단은 비행의 학습이 일어나는 집단이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들의 단순한 합으로 본다.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비행친구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의 특성과 비행 실행의 용이성에 대해 설명한다(Gottfredson&Hirschi, 1990). 낮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기적이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비행은 혼자 행하는 것 보다 집단에서 행할 때 비행을 실행하기 쉽다. 즉, 낮은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친구들과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고 그들의 비행 욕구를 충족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비행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비행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happle, 2005).

하지만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영향에 대한 청소년 비행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어린 시절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초기 주장과는 다른 연구방향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Jennings et al, 2013). 자기통제력을 통제하더라도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독립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et al, 1997; Pratt&Cullen, 2000; Gibson&Wright, 2001; Jennings et al, 2013 재인용). 또한 자기통제력의 안정성과 관련된 Jenning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자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집단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집단에서 자기통제력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교류와 자기통제력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입목표는 비행 발생의 예방과 비행의 지속을 차단시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표는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 속에서도 개인의 비행수준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개입함에 따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실천 연구에서는 부정적 산물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통해 부정

적 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 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박현선, 이상균, 2008).

적응유연성은 적대적 환경이나 개인의 결핍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발달에 성공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나타난 개념이다(Fraser et al, 2004). 적응 유연성은 개인이 처한 위험상황과 역경을 중재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내·외부로부터 획득한 보호요인이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산물이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의 상호작용 모델을 통해 개인의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감소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래관계를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과 비행친구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개입 가능성이 큰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이론의 관계가 경쟁적인 것처럼 비교되어 이론적 검증이 진행(이성식, 2011, 황성현, 이강훈, 2013, Chapple, 2005)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영향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몇몇의 연구(조주연, 김신영, 2010; 이성식, 2011; McGloin&Shermer, 2009; Meldrum et al, 2009)가 존재하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 8차 자료를 사용하여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 수준(친한친구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 경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의 개념은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인 범주에서의 비행은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법률적으로는 실증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도덕적 차원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어긴 것을 말한다.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교육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심미영, 정규석, 2007). 청소년 비행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난 옳지 못한 청소년의 행동을 일컫는다(홍성훈, 김희수, 2007).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내용은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 제2조와 제4조 1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비행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소년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을,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중에서 죄를 범한 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가출이나 유해환경 출입, 음주, 집단행동 등을 행한 자 중에서 그들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 개념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김준호 외, 2013).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중범죄와 중범죄보다는 죄질이 가벼운 절도, 폭행, 법 위반 등의 경범죄, 마지막으로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지위비행<sup>3)</sup>까지 청소년 비

---

3) 청소년 지위비행이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지위비행에는 음주, 흡연, 성인사이트 접속, 가출 등이 있다.



행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비행이란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형벌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개념을 “청소년이 행위 주체로서 그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나 규범에 어긋나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 제2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사회학습이론

청소년 비행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 비행친구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Sutherland(1947)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으로부터 출발한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이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말한다. Sutherland(1947)는 차별접촉에 대한 9가지 진술문에서 차별접촉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범죄행위는 친밀한 인격적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며,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은 빈도, 지속성, 강도, 우선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개인은 차별접촉을 통해 범죄행위뿐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정의(definition)도 함께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된 정의가 법위반에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에 따라 개인의 비행이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법위반에 호의적인 사람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면 법 위반에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되며, 학습된 가치와 태도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 개인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잦을수록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범죄행위를 친구들로부터 학습하게 되고 그에 따라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등장 이후,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없이도 비행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개인이 비행을 학습하는 과정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과 지적을 받게 되었다(김준호 외, 2013). 차별접촉이론에 대한 비판과 지적 속에서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별접촉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Akers(1985)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 원리를 철저히 계승하면서도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발전시킨 이론이다. Akers(1998)는 사회학습이론을 사회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의 맥락으로 인해 비행과 동조행동이 학습되고 발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4가지 주요개념을 제시한다. 사회학습이론의 주요개념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과 정의(definition) 개념을 그대로 간직하면서(Akers, 1985)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의 개념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을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의 4가지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Akers, 2008).

먼저 차별 접촉은 주요한 집단과의 직접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간접적 교류와 준거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이 친구와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학습이론은 친구의 영향력을 중시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이웃, 지역사회 등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차별접촉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정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으로 가치(value), 태도(attitude), 합리화(rationalization), 상황 정의(definition of situations) 등 도덕적이고 평가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셋째, 차별적 강화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행위는 과거, 현재, 예상되는 미래의 보상과 처벌에 영향을 받으며 행위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보상이 있을 경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처벌이 있을 경우 행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사회적 보상이 주된 개념이지

만 생리적이거나 신체적인 것에 의한 강화도 보상의 개념으로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후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학습이론의 등장 이후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부터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그들과 유사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ptula & Cohen, 2004; De Kemp et al, 2006; Fergusson et al, 2007; Paternoster et al, 2013).

국내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고등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한 유순화, 정규석(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 중 모방을 제외한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가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드러나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 비행 이론들을 비교 분석한 황성현과 이강훈(2013)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론들에서 나타내고 있는 주요개념들과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사회학습이론의 개념들이 청소년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 사용된 모든 이론적 개념들을 통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수인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수와 정혜원(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비행을 행한 시기에 따라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비행친구의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 모두 비행친구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을 지지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습이론 검증 연구들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다루는 4가지 주요 개념 중 특정 개념들에 의해 편향된 사회학습이론 검증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Akers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청소년 비행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4가지 주요 요인들(차별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학습이론 검증 연구들은 차별접촉과 정의개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별적 강화개념과 모방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학습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학습이론 검증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Pratt et al(2010)은 사회학습이론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검증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의 지지와 발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차별적 강화 개념은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차별적 강화 개념을 제외한 사회학습이론 검증 연구는 비행친구와의 교류로부터 학습되는 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Krohn(1999)은 사회학습이론의 발전을 위해 사회학습이론의 다른 요인들 보다 차별접촉 개념을 사용한 청소년 비행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rohn의 주장에 따르면 차별접촉 개념은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인

차별접촉 개념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적 강화와 같은 과정 지향 요소(process-oriented elements)들은 사회학습이론 관련 연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비행을 분석함에 있어 Krohn(1999)의 주장을 따라 사회학습이론의 4가지 요소 중 차별접촉만 다루기로 하겠다. 아직 한국의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차별접촉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학습이론 주요 요소 모두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Pratt et al(2010)조차도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차별적 강화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개념들 중 차별접촉을 사용하여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 제3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낮은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된 청소년 비행 이론 중 하나이다(Jennings et al, 2013). Hirschi는 사회유대(Social Bond)를 통해 개인의 범죄성향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Gottfredson과 함께 범죄의 원인은 낮은 자기 통제력(low self-control)에 있다는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을 제시하였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요인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 상황적 조건들(situational conditions)이다. 일반이론에서 청소년 비행의 발생은 청소년 개인의 자기통제력 수준과 상황적 조건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발생될 때 자기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지 않은 개인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자기통제력이론에서 자녀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가정에서의 충분한 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 있다. 가정은 개인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인 장소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으며 양육된 자녀들은 적절한 사회화를 거치게 되어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지만,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기능적 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sup>4)</sup>들이 존재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에게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충동적,

---

4)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가정의 기능적 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부모의 낮은 통제력, 많은 자녀 수, 원가정이 아닌 경우(한부모, 재혼한 부모 등),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제시하였다.

몰이해적, 육체적, 위협을 찾기, 근시안적, 언어적이지 않은 등의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개인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Gottfredson & Hirschi, 1990).

개인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8세에서 10세 사이에 결정되며 이때 결정된 자기 통제력은 일생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relatively stable)으로 나타나게 된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어린 시절 결정되는 자기 통제력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 제제(sanctions)에 대한 지식이 변하더라도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가 자기통제이론에서 주장한 자기통제력의 안정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검증 연구들이 비행연구자들로부터 시도되었고 그 결과, 낮은 자기 통제력은 시간이 지남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이 지지받을 수 있게 되었다(민수홍, 2006; 이성식, 2007; Grasmick et al., 1993; Turner & Piquero, 2002; Hay & Forest, 2006; Higgins et al, 2009).

일반이론에서 다루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예측한다는 점과 자기 통제력의 비교적 안정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 되었지만, 자기통제력의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한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저서에서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화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의 정확한 측정 은 자기통제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행위인 비행, 범죄, 공격적 행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행이 비행을 설명하는 동어반복(tautology)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Jennings et al, 2013). 첫째, Grasmick et al(1993)의 태도적 측정이다. 태도적 측정은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개념이며 일반이론에서 낮은 통제력을 가진 이들의 특징으로 나왔던 충동적, 몰이해적, 육체적, 위협을 찾기, 근시안적, 언어적이지 않은 등의 특징을 척도화 시킨 것이다. 둘째, Gottfredson과 Hirschi(1994)의 행동적 측정이다. 그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한 자기 통제력의 측정은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자기통제력을 행위의 결과(비행, 범죄 등)로 측정하였을 때 동어반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가 아닌 행동으로 자기 통제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빌린 물건을 반납하지 않거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행동적 측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행동적 측정도 동어 반복적이라는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Hirschi(2004)의 수정된 자기통제력 측정이다. 그는 자기통제력 측정에 있어 사회통제이론에서 다루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포함시킨 새로운 자기통제력 측정을 주장하였다. Gottfredson(2008)은 앞서 기술한 세 가지 측정 모두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든 자기통제력 연구의 측정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국내의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측정을 Grasmick et al(1993)의 태도적 측정방법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민수홍, 2006; 이성식, 2007; 이성식 2011), 태도적 측정방법과 다른 척도를 혼합하여 자기 통제력을 측정하기도 하였다(조주연, 김신영, 2010).

본 연구에서는 Grasmick et al(1993)의 태도적 측정 방법을 토대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것이다. 태도적 측정 방법은 동어반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일반이론에서 다루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자기통제이론이 등장했을 당시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비행친구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가정의 사회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 다른 제재 체계(other sanction system)나 기관을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통제이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론에서 다른 제재체계나 기관과 같은 가정 이외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개인의 비행 관계가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라고 말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회학습이론가들이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갖는 관계에서 인과적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끼리 모이게 되는 이유는 모험과 위험을 즐기고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특성 때문이다. 신뢰가 없고 진실 되지 않으며 이기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은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되어 낮은 통제력을 가진 개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 집단에서는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화는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단지 무모하고 모험을 즐기는 개인들이 비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비행의 상황적 기회가 집단을 통해 제공된다(Gottfredson&Hirschi,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은 비행 연구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Gottfredson과 Hirschi의 관점과는 다른 연구방향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Jennings et al, 2013). 자기통제력을 통제하더라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의 비행과 자기통제력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vans et al, 1997; Gibson&Wright, 2001; Jennings et al, 2013 재인용). 자기통제력 관련 연구에서 비행친구 영향을 제외하는 것은 그 연구의 연구 설계부터 잘못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Pratt&Cullen, 2010).

최근 들어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McGloin&Shermer, 2009; Meldrum et al. 2009; Jennings et al, 2013). 다음 절에서는 비행친구의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제4절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다른 방향을 나타낸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커질수록 개인의 비행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자기통제력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비행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이 같은 관계는 부정적 산물(청소년 개인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비행친구와의 교류) 속에서도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통해 부정적 산물의 발생을 조절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상호작용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적응 유연성 개념은 전통적인 병리학적(pathology) 개념을 벗어나 적대적 환경이나 상당한 결핍 속에서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발달에 성공하는 아동, 청소년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Fraser et al, 2004).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거나 긍정적 발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된다(Fraser et al, 2004). 개인의 풍부한 자원, 동기부여, 높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인 특징으로 적응유연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위험을 중재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속성과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자원이 역경과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산물이다.

적응유연성에서 다루는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역경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과정에서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위험요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거나 문제적 상황을 유지, 더욱 심각한 상태로의 탈선과 같이 부정적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영향을 의미한다.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 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위험상황을 변경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모두 의미하는 개념이다(Fraser et al, 2004).

적응유연성의 기본 모델 중 상호작용모델은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강조한다. 상호작용모델은 오직 위험요인과 결합하여 보호요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위험 상황에서는 보호요인의 효과가 크지 않지만 고위험 상황에서 보호요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즉, 청소년 개인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수준이 높을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보호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게 되면 특정한 변인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대상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뿐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박현선, 이상균, 2008). 하지만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에서 상호작용효과의 확인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바라보는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차이는 두 이론의 관계가 경쟁적인 것처럼 비교되어 이론적 검증이 진행되어왔다(이성식, 2011, 황성현, 이강훈, 2013, Chapple, 2005). 최근 들어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개인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몇몇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McGloin과 Shermer(2009)는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단위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10,0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구조 안에서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Yarbrough et al(2012)은 1,674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학습이론의 변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나이,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교류, 정의(definitions) 변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이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어느 하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eldrum et al(2009)은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측정을 직접적(친구가 직접 응답)과 간접적(연구 대상자가 응답)으로 나누어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간접적 측정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조주연, 김신영, 2010; 이성식, 2011). 조주연과 김신영(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연구대상자 중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 개인의 온/오프라인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온라인 비행에서는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영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비행에서는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영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식(2011)은 서울지역에 위치해있는 7개 중학교에서 71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이론 변수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이론의 변수들은 부분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

습이론 변수 중 차별접촉과 정의 변수는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별적 강화와는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식(2011)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 분석을 위해 비행친구와의 교류 수준을 평균을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기통제력이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같은 자기통제력을 가졌더라도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던 연구에서조차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변수 측정의 차이로 인한 결과(Yarbrough et al, 2012)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Jennings et al(2013)은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국가단위 자료를 통해 총 629명을 대상으로 4세부터 14세까지의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 영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자기통제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의 영향이 없을 때에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처럼 4세부터 14세까지의 자기통제력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8세부터 비행친구 영향이 존재하게 되자 8세부터 14세까지의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 영향이 없을 때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에서 비행친구로 인한 자기통제력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위치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 것이다.

Jennings et al(2013)은 그들의 연구결과와 경험적 연구들에서 보고된 비행친구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며,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은 통합이론(Social learning and Self-control synergistic theory)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직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구들에서도 두 변수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Jennings et al(2013)의 이러한 주장은 더 많은 비행친구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지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조주연과 김신영(2010)의 연구는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비행에 대해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이론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탐색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절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측정을 “있다”, “없다”인 가변수(dummy variable)로 하였기 때문에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측정을 0~6점까지 함으로써 조주연과 김신영(2010)의 연구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주연과 김신영(2010)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대한 측정을 지위비행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바는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비행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청소년 개인의 비행을 지위비행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청소년 비행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성식(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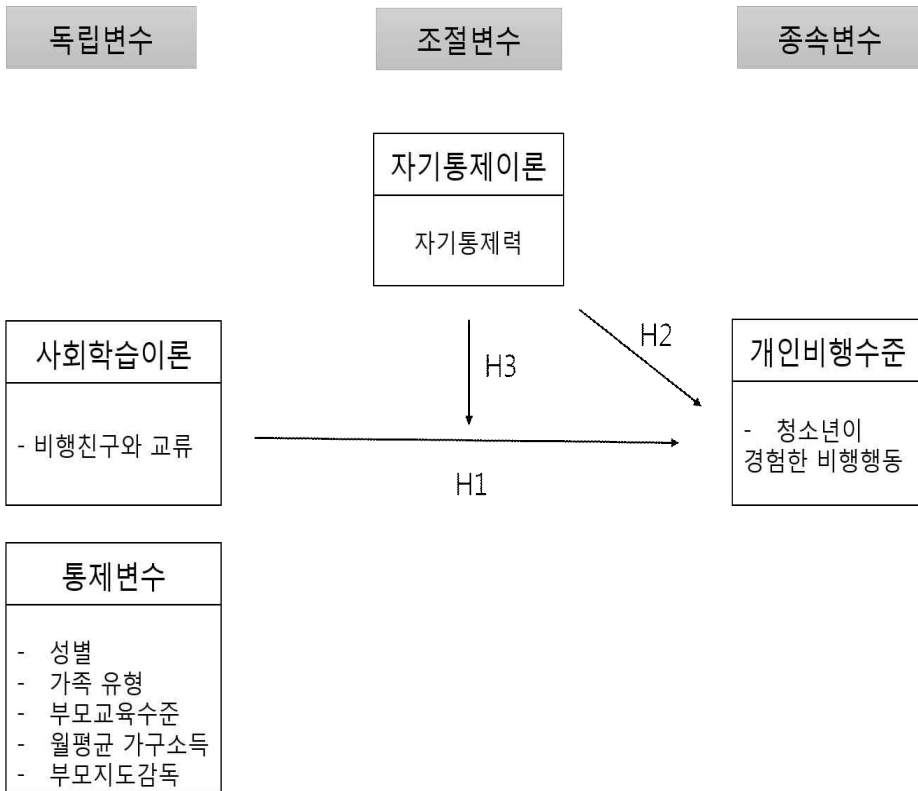
비행의 주된 요인을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사회학습이론으로 두고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해환경접촉과 청소년 비행 모두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접촉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청소년 개인의 비행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완충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한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 수준(친한친구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비행경험이 많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의 비행 경험에 많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3.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개인의 비행 경험에 주는 정적인 영향은 자기통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 제4장 연구방법

### 제1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8차년도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아동패널 데이터는 2004년부터 서울지역 내 11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 학업성취, 비행, 건강, 생활경험 및 가족환경 등을 측정한 자료이다. 서울아동패널 조사는 매년 1회 진행되었으며, 아동과 부모를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종단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8차년도 서울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조사대상인원은 1,339명이다.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사회학습이론에서 다루는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이다. Akers(1998)는 청소년 비행을 친구를 포함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과의 차별접촉을 통해 비행이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그 만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중학생 보다 많다. 고등학생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만큼 친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차별접촉의 영향력이 중학생보다 명확히 관찰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유해매체 이용과 비행 경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실천 개입을 위해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행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보고서(여성가족부, 2012)에 따르면 모든 청소년 유해매체와 비디오/DVD방을 제외한 모든 유해업소 이용에서 고등학생의 이용률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흡연(30.9%), 음주(60.8%), 성적인 접촉(20.9%), 가출(13.7%) 경험률 또한 중학생의 흡연(18%), 음주(32.6%), 성적인 접촉(5.5%), 가출(10.6%) 경험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인 가구 경제수준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통제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가구 경제수준은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가구의 소득 관리 주체인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서울아동패널조사 7차년도와 9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인 7차년도 조사에서 부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로부터 월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아동패널 9차년도 조사 자료에는 부모 응답 자료가 존재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의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비행친구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 서울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한 1,339명 중 청소년의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총 970명이다.

##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Krohn(1999)이 사회학습이론에서 다루는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비행친구와의 교류이다. 일반적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측정은 “당신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 아동들과 어울립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부모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Warr(2002)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측정함에 있어 부모가 응답하는 단일 문항이 자녀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처럼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국의 고등학생일 경우, 부모는 아동의 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들이 직접 응답한 문항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측정하고자 한다(정익중, 2006; 박현선, 이상균, 2008; 이성식, 2011).

독립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학교에서 처벌(근신, 정학, 퇴학)을 받은 경험,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갈취, 절도 등의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친한 친구들 중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각 비행행동을 경험한 친구들의 수를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비율로 전환하여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되어 있음) 사이의 점수로 변환시킨 후 총 8개 문항을 합산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분포는 정규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변수의 분포가 좌편향(positive skew) 되어있을 때 해당 변수 값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것은 좌편향 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어 준다(Tabachnick&Fidell,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한 계산값으로 사용하였다(Ln [비행친구 교류 총합]).

##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행동이다. 총 10개의 문항 중 비행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9개 문항으로 청소년 개인의 비행을 측정하였다. 전체 비행 문항에서 제외시킨 한 가지 문항은 성인사이트 접속여부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각종 유해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인사이트 접속여부로 청소년의 비행을 판단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종속 변수는 “담배를 피운적이 있다.”, “술을 마신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학교를 이유 없이 빼먹은(무단결석) 적이 있다.”,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마다 심각도에 차이가 있어 심각한 비행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행보다 빈도가 낮을 수 있다.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행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흡연은 “하루 한번 이상 피운다”에, 음주의 경우 “한달에 한번 이상 마신다”에 응답한 이들로 비행을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러 항목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형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추정해야 할 모수 개수를 줄여 적절한 추정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Kline, 2005; 정익중, 2006; 박현선, 이상균, 2008 재인용). 원 문항을 문항별 경험의 유무(없는 경우=0, 있는 경우=1)로 변환하여 총 9개 문항 모두를 합산한 복합척도로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9가지 비

행에 대해 단한번의 비행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수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0값(비행을 하지 않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오차의 정규성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독립변수의 수가 많다면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오차의 정규성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지만 본 연구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200개 이상)는 오차의 정규성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없다(David G. Kleinbaum, et al, 1998). 하지만 보다 엄밀한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의 값도 자연로그를 취한 계산값으로 사용하였다(Ln[청소년 개인 비행 총합]).

###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자기통제력이다. Grasmick et al(1993)가 고안한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척도를 서울아동패널 연구단이 패널조사에 알맞게 변형한 것으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한다. 단순 작업성, 충동성, 위험 추구성, 이기성, 화 기질, 육체성 등 여섯 가지 특성에 대해 각 1문항씩 총 6개의 문항을 가지고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6개 문항을 모두 합산한 점수(Cronbach's  $\alpha = .745$ )로 자기통제력을 측정한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부모교육수준, 가족 유형, 월평균가구소득)와 부모 지도감독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현선, 이상균, 2008; 진혜민, 배성우, 2012). 일부 청소년 비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민수홍, 2006; 진혜민, 배성우, 2012). 부모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인적자원이다. 부모가 교육에 대해 많은 기회를 가졌을 때 부모는 친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쉬워진다. 부모는 자녀와 이러한 가치와 성취를 공유하게 됨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raser et al, 2004).

가족의 유형은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된 주제이다. 친부모 모두가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비행수준이 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2013).

가정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을 부모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외출시간과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은 매우 중요하다(Nye, 1958; West&Farrington, 1973; Patterson et al; 김준호 외, 2013 재인용). 특히 청소년이 속해있는 환경의 위험수준이 높을 경우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Fraser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부모지도 감독 변수를 통제하고자 한다.

성별은 여성일 경우 0, 남성일 경우 1로 처리하였다. 부모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대학교 졸업 이상 1로 이분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 교육수준은 부모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로 구성하였다(이봉주 외, 2010). 가족 유형은 청소년이 양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일 경우 1로 처리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부모가 응답한 월평균 가구소득(단위: 만원)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로 범주화시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개 문항을 모두 합산한 복합척도(Cronbach's  $\alpha=.812$ )로 나타내었다.

###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의 지도감독, 비행친구와의 교류, 자기통제력 및 개인의 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백분율,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제변수와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에 있어 청소년의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Aiken과 West(1991)가 제안했던 상호작용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자기통제력 수준을 세가지 단계(-1SD, mean, +1SD)로 구분하여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H_1 : \text{Ln}[Y_{HI}] = \beta_0 + \beta_1 \text{Ln}[X_1] + [\text{Control Variable}] + V_{HI}$$

$$H_2 : \text{Ln}[Y_{IE}] = \beta_a + \beta_b \text{Ln}[X_1] + \beta_c X_2 + [\text{Control Variable}] + V_{IE}$$

$$H_3 : \text{Ln}[Y_{HB}] = \beta_I + \beta_{II} \text{Ln}[X_1] + \beta_{III} X_2 + \beta_{IV} \text{Ln}[X_1] X_2 + [\text{Control Variable}] + V_{HB}$$

위의 회귀식에서  $\text{Ln}[Y]$ 는 청소년 개인의 비행경험 수준을 나타내며  $\text{Ln}[X_1]$ 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X_2$ 는 자기통제력을,  $\text{Ln}[X_1]X_2$ 는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낸다.  $\beta$ 는 각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V$ 는 각 회귀식마다 오차항을 나타낸다.

## 제5장 연구결과

###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족유형, 월평균 가구소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1>과 같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970)

변 수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501	51.6
	여	469	48.4
부모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0	42.3
	대학교 졸업 이상	560	57.7
가족유형	양부모 가정	871	89.8
	한부모/조손 가정	99	1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58	16.3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393	40.5
	400만원 초과	419	43.2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970명 중 남자 청소년 501명(51.6%), 여자 청소년 469명(48.4%)으로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부모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0명(42.3%),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0명(57.7%)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모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유형은 양부모가 있는 가정이 871명(89.8%)으로 전체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이 99명(1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에서 200만원 이하가 158가구(16.3%),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가 393가구(40.5%), 400만원 초과 419가구(43.2%)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466.18만원, 중위수는 400만원으로 나타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의 2012년 월평균 명목가구소득(407.7만원)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의 비행과 비행친구 유형 특성

조사대상자의 비행 유형에 관한 분포는 아래의 <표 5-2>와 같다.

<표 5-2> 조사대상자의 비행 유형에 관한 분포

(n=970)

변 수	경 험 여 부			
	있음(명)	백분율	없음(명)	백분율
흡 연	43	4.4	927	95.6
음 주	40	4.1	930	95.9
절 도	55	5.7	915	94.3
폭 행	28	2.9	942	97.1
갈 취	8	0.8	962	99.2
가 출	31	3.2	939	96.8
학교 무단결석	31	3.2	939	96.8
폭력써클 가입	3	0.3	967	99.7
패 싸 움	6	0.6	964	99.4

전체 조사대상자 중 각 항목 당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154명(15.9%)이고 한번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은 816명(84.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경우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 흡연의 경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3명(4.4%),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927명(95.6%)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에서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0명(4.1%),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930명(95.9%)으로 나타났다. 절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비행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는데, 절도를 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명(5.7%),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915명(94.3%)로 나타났다. 폭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8명(2.9%),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942명으로 나타났으며, 금전갈취에서는 갈취를 행한 청소년이 8명, 경험하지 않는 청소년 962명으로 나타났다. 가출과 무단결석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31명,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이 939명으로 두 항목의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폭력 씨클 가입에서는 가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명, 가입경험이 없는 청소년 967명으로 비행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패싸움에서는 패싸움 경험이 있는 청소년 6명, 패싸움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964명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94명(30.3%)이고 비행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76명(69.7%)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친한 친구들 중 각각의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3>과 같다.

<표 5-3> 친한 친구들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

(n=970)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학교처벌 (근신, 정학, 퇴학 등)	0.012	0.072
경찰서 출입	0.014	0.073
흡 연	0.095	0.236
음 주	0.130	0.276
무단결석	0.022	0.099
폭 행	0.005	0.043
갈 취	0.004	0.040
절 도	0.004	0.042

조사대상자의 친한 친구 중 음주를 경험한 친구들의 비율 평균이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9.5%), 무단결석(2.2%), 경찰서 출입(1.4%), 학교처벌(1.2%), 폭행(0.5%), 갈취(0.4%), 절도(0.4%) 순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5-4>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집중 경향도와 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5-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종 속 변 수	청소년의 비행 경험 수준 [ln(개인 비행 항목 합산)]	0.142	0.350	0	1.95	2.534	6.049
독 립 변 수	비행친구와 교류 수준 [ln(각 항목별 비행친구비율 합산)]	0.176	0.339	0	2.01	2.147	4.265
	자기통제력	22.37	4.221	6	30	-0.272	-0.304
	부모지도감독	12.135	2.370	4	16	-0.397	0.688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 수준, 비행친구와 교류 수준을 먼저 살펴보면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 수준의 평균은 0.142, 표준편차가 0.350이며 비행친구와 교류 수준의 평균은 0.176, 표준편차는 0.339로 나타났다. 전체 970명(100%) 조사대상자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154명(15.9%),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가 한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4명(30.3%)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비행 변수와 관련된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아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평균은 22.37, 표준편차는 4.221로 나타났다. 부모지도감독의 평균은 12.135이고 표준편차는 2.370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사용될 각 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3미만이고 첨도 절댓값이 10미만이면 그 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Klin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단순 상관관계(Pearson's  $r$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5>와 같다.

먼저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지도감독과 비행친구와의 교류( $r = -.179, p < .001$ ), 부모지도감독과 자기통제력( $r = .250, p < .001$ ),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 $r = -.294,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높을수록 부모지도감독과 자기통제력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지도감독과 자기통제력은 부모지도감독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수의 절대값이 0.6 또는 0.7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에는 가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하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될만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속변수인 청소년의 비행 경험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독립변수 중 비행친구와의 교류, 자기통제력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부모지도감독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 교류( $r = .545, p < .001$ )와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행동이 많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r = -.306, p < .001$ )과 부모지도감독( $r = -.124, p < .001$ )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통제력과 부모지도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경험한 비행행동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이 경험한 비행행동이 많은 것( $r = .183, p < .001$ )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 있는 가구보다 한부모/조손 가정일 때 경험한 비행이 더 많은 것( $r = .077, p < .05$ )으로 나타났다.

<표 5-5>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성별	부모 교육수 준	가족유 형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초과	부모 지도감독	비행친구 교류	자기통제력	청소년 비행 경험
성별	1								
부모 교육수준	-.055	1							
가족유형	-.042	-.125***	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21	-.148***	-.091**	1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초과	-.014	.304***	-.205***	-.720***	1				
부모 지도감독	-.184***	.103**	-.091**	-.006	.072	1			
비행친구 교류	.181***	-.053	.027	.003	-.005	-.179***	1		
자기통제력	-.122***	.089**	-.015	.025	.000	.250***	-.294***	1	
청소년 비행 경험	.183***	-.023	.077*	-.038	.031	-.124***	.545***	-.306***	1

\*p<.05, \*\*p<.01, \*\*\*p<.001

### 제3절 가설검증<sup>5)</sup>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주효과, 자기통제력이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주효과, 자기통제력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주효과 모형에서는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통제변수 모두를 투입하였고 조절효과 모형에서는 주효과 모형의 변수들에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통제력의 평균값, -1 표준편차, +1 표준편차 값을 회귀식에 대입해 단순 기울기 검증 (simple slope test)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들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에서 왜도가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0). 둘째, 오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Breusch-Pagan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한 결과( $p < 0.05$ ) 회귀식의 오차들은 등분산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오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추정에 있어 편의(bias)가 생긴다(Hayes, 2013). 하지만 오차의 등분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종속 변수의 임의적인 변형이나 오차의 이분산성을 가정한 모델을 사용

---

5)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을 측정함에 있어 행위의 차이에 따라 중범죄, 경범죄, 지위비행 등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 비행의 행위 군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부록을 작성하였다. 부록1에서는 청소년 지위비행인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을 합산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였고 부록2에서는 지위비행 이외의 청소년 비행인 절도, 폭행, 갈취, 폭력써클 가입, 패싸움을 합산하여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부록의 분석방법은 종속변수를 자연로그(ln) 값으로 변환한 뒤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HCSE를 사용한 OLS추정을 사용하였다.

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선형 회귀식을 추정하는 방식인 단순최소제곱법(OLS)에서 Standard error 대신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HCSE)를 사용한 OLS 추정을 사용하여 오차의 이분산성으로 인한 편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Hayes&Cai, 2007).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HCSE를 사용한 OLS 추정이기 때문에 Breusch-Pagan의 등분산 검증에서 나타난 오차의 이분산성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모형의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2이하로 확인되어 다중공성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인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독립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청소년의 비행 경험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6>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1	
		B	S.E(HC)
성별		.063**	.019
부모 교육수준		.004	.022
가족 유형		.090*	.04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004	.029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038	.032
부모지도감독		-.002	.004
비행친구 교류		.542***	.050
상수		.003	
R <sup>2</sup>		.311	
Adj. R <sup>2</sup>		.306	
F		23.647***	

\*p<.05, \*\*p<.01, \*\*\*p<.001

Model 1은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비행친구 교류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Model 1의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은 23.647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수정  $R^2$ 은 .306으로 비행친구 교류와 통제 변수들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3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행친구 교류( $B=.542$ ,  $p<.001$ )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교류수준이 1% 증가할 때 청소년의 비행 경험이 .541% 증가[(ln비행친구) 교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ln.542 증가한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비행친구와의 교류(친한친구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가 많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 $B=.063$ ,  $p<.01$ )과 가족유형( $B=.090$ ,  $p<.05$ )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비행 경험이 .063%, 한부모/조손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청소년 비행 경험이 .09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에 자기통제력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표 5-7>과 같다.

<표 5-7>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2	
		B	S.E(HC)
성별		.059**	.019
부모 교육수준		.011	.021
가족 유형		.093*	.04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08	.029
	400만원 초과	.038	.032
부모지도감독		.003	.004
비행친구 교류		.501***	.050
자기통제력		-.013***	.003
상수		.246	
R <sup>2</sup>		.333	
Adj. R <sup>2</sup>		.328	
F		23.983***	

\*p<.05, \*\*p<.01, \*\*\*p<.001

Model 2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F값은 17.888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수정  $R^2$ 은 .328로 비행친구와의 교류, 자기통제력, 통제변수들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3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행친구 교류( $B=.501$ ,  $p<.001$ ), 자기통제력( $B=-.013$ ,  $p<.001$ ), 성별( $B=.059$ ,  $p<.01$ ), 가족유형( $B=.093$ ,  $p<.05$ )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행친구 교류가 1%증가할 때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501%증가하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013% 감소하게 되었다. Model 2의 검증을 통해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행친구 교류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비행 경험은 증가하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비행 경험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의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는 연구가설 2도 연구가설 1과 마찬가지로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B=.059$ ,  $p<.01$ )과 가족유형( $B=.093$ ,  $p<.05$ )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Model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3. 비행친구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모형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 모형인 Model 3는 Model 2에 비행친구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검증을 시행하였다.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은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한 후 모델에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변수를 평균중심화를 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 편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Aiken&West, 1991). 상호작용항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Model 3	
		B	S.E(HC)
성별		.066***	.018
부모 교육수준		.010	.021
가족 유형		.097*	.04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09	.029
	400만원 초과	.040	.032
부모지도감독		.001	.004
비행친구 교류		.423***	.060
자기통제력		-.014***	.004
비행친구 교류 × 자기통제력		-.029*	.013
상수		.075	
R <sup>2</sup>		.350	
Adj. R <sup>2</sup>		.344	
F		2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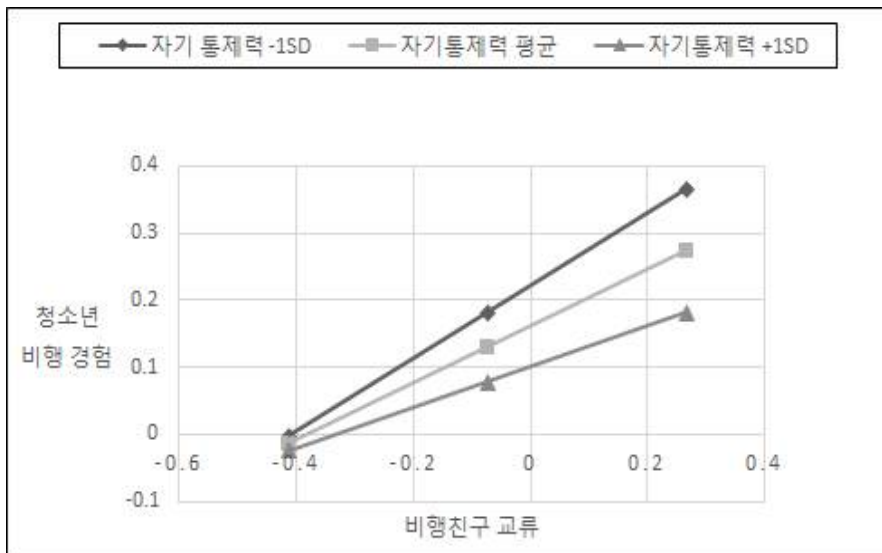
\*p<.05, \*\*p<.01, \*\*\*p<.001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에서 R<sup>2</sup>변화량에 대한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Aiken&West, 1991). Model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21.989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Model 3

에서 나타난 수정  $R^2$ 를 Model 2와 비교하였을 때 수정  $R^2$ 의 변화량은 0.016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됨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량을 1.6% 더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 사회과학연구에서 나타나는  $R^2$ 의 변화량이 0.01~0.03사이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Model 3에 나타난  $R^2$ 변화량의 크기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Chaplin, 1991; Whisman&McClelland, 2005; 박현선, 이상균, 2008 재인용).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B=-.029$ ,  $p<.05$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친구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Model 3를 통해 확인된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단순기울기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친구 교류의 단순기울기 검증은 일반적으로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pm 1$  표준편차의 조건값에서 얻어진 종속변수 값으로 시행하였다(Cohen&Cohen, 1983; Aiken&West, 1991 재인용).

[그림 5-1] 자기통제력에 따른 비행친구 교류의 영향



[그림 5-1]에서처럼 평균정도의 자기통제력을 가지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 교류가 갖는 단순기울기는 .423( $p<.001$ ), -1표준편차를 가지는 청소년의 단순 기울기는 .543( $p<.001$ ), +1표준편차를 가지는 청소년의 단순기울기는 .303( $p<.01$ )이었다. 측정한 단순기울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에 상관없이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기통제력에 따른 비행친구 교류의 단순기울기 검증값은 아래의 <표 5-9>와 같다.

<표5-9> 자기통제력의 조건값에 따른 비행친구 교류의 단순기울기 검증

		비행친구 교류의 단순기울기		
		B	S.E(HC)	t
자기 통제 력	-1 표준편차	.543	.052	10.491***
	평균	.423	.060	7.000***
	+1 표준편차	.303	.103	2.938**

\* $p<.05$ , \*\* $p<.01$ , \*\*\* $p<.001$ .

## 제6장 결 론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Akers(1985)의 사회학습이론 등장 이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설명하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통제이론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지도감독을 통해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일생에 걸쳐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며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형성된 이후의 영향은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험적 연구에서 조차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지속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비행친구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환경의 어떠한 요소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중요해지는 청소년기 특성상 청소년과 비행친구의 관계를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 속에서도 개인의 비행수준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친구와의 교류 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Jennings et al, 2013)가 나타나게 되면서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력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행친구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확인된다면 비행친구의 영향력보다 비교적 개입 가능성이 큰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비행친구의 영향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모형,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 모형,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아동패널 8차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항목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인원을 제외한 97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비행친구와의 교류수준이 청소년 개인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주효과 모형을 통해 <연구문제 1>을 검증하였다. 비행친구 교류와 청소년 개인 비행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Model 1의 결과,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비행친구와의 교류(친한친구 중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가 많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가족유형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Model 1에 자기통제력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검증결과, 통제변수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비행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가 지지되었다. 또한 Model 1과 마찬가지로 비행친구 교류, 성별, 가족유형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3>의 검증을 위해 Model 2에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Model 3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친구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친구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력이 조절한다는 <연구가설 3>가 지지되었다. Model 3에서는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자기통제력의 조건값(평균값과  $\pm 1$  표준편차)에서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단순기울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에 상관없이 비행친구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2절 논의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주요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주효과와 자기통제력이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비행친구와의 교류·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Model 1과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 모두를 통제된 Model 2의 분석결과,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비행 경험 수준이 높아진다는 Model 1의 연구결과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ptula & Cohen, 2004; De Kemp et al, 2006; Fergusson et al, 2007; Paternoster et al, 2013). 국내의 연구 중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조주연, 김신영, 2010; 이성식, 2011)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함께 자기통제력을 통제된 Model 2의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비행 수준이 높아졌다. 자기통제력을 통제하였음에도 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개인의 비행 관계가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라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영향이 함께 고려해야한다(Evans et al, 1997; Gibson&Wright, 2001; Jennings et al, 2013 재인용)는 입장이 지지되었으며, 자기통제력을 통제하더라도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조주연, 김신영, 2010; 이성식, 2011)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2.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 개념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자기통제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상호작용모형을 검증하였다. 보호요인으로써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확인될 경우, 청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Model 2에 비행친구의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3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중학생의 온라인·오프라인 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주연, 김신영, 2010), 사회학습 변수 중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및 비행태도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성식,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 경험은 많아지게 되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은 청소년인 경우,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개입이 청소년 비행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 개념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비행친구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이론 관점에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이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자기통제이론에서 비행의 원인이 되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 적절한 부모의 지도감독을 받지 못한 자녀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일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한번 고정된 자기통제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자기통제력의 변화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안정적이었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자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Jennings et al, 2013), 남자 청소년들을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에 9회기 동안 참여시켰을 때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프로그램 전보다 7.4%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상희 외, 2014). 따라서 Gottfredson와Hirschi(1990)의 주장처럼 자기통제력은 환경이 변하더라도 일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첫째, 청소년 비행에서 위험요인인 자기통제력에 대해 적응유연성 개념을 적용하여 비행친구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써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주요 변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주 효과와 더불어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모델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경험의 주된 원인인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높은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함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중학생을 포함한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중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비행친구와의 교류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친구의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이 중학생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기에 걸쳐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 효과의 일반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항의 검증함에 있어 단순기울기 검증을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만을 검증하는 방법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임의의 조건값으로 상호작용을 나타냈을 경우, 그 조절변수가 해당 조건값에서 유의미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기울기 검증은 조절변수가 평균,  $\pm 1$  표준편차 값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 2. 정책적·실천적 함의

첫째,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인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 비행의 주된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청소년기 특성상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경우,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의 지도 감독을 강화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비행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입시위주의 교육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 학생이 비행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한다면 그 학생이 새로운 집단에서 건전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과 차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인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아 충분한 사회화가 이루어진 아동의 경우 높은 자기통제력

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동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자기통제력이 결정되는 시기인 8세에서 10세까지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사회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Gottfredson와Hirschi(1990)는 가정에서 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들로 원가정이 아닌 경우(한부모, 조손부모 등),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부모의 낮은 통제력,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제시하였다. 가정의 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감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은 다른 제제 체계나 기관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아동의 가정에 사회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경우 아동이 충분한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동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이 높은 자기통제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 개인의 비행 경험을 증가시키지만,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보다 비행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에게 미치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비행친구 영향 속에서도 쉽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과 가족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남성은 여성보다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생물학적인 위험요소 중 하나로 남성은 여성보다 스트레스나 가족문제에 대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다. 이러한 남성의 반사



회적인 반응은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심각한 특징을 나타낸다(Fraser, 2004).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시 지속적이고 심각한 비행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일 경우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청소년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일 경우 어떠한 이유로 청소년 비행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 자기통제력, 부모지도감독, 소득을 통제하였음에도 가족유형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빈곤으로 인한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2010)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한부모 가구의 20%~30% 정도로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을 때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개인에게 비행, 방임, 행동장애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위협이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요소이다(Fraser, 2004).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인 가족유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가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회학습이론 변수 중에서 차별적 접촉개념인 비행친구와의 교류만을 사용하여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사회학습변수를 전반적으로 다루진 못했다. 차별적 접촉 변수가 사회학습이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외시킨 차별적 강화, 모방, 정의 개념은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이다 (Pratt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개념만 포함시켜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이 주장하는 바를 잘 나타내기 위해 사회학습이론 변수 모두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사 중 8차년도 조사자료(2012)를 통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시점을 이용한 횡단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변수의 관계에서 상호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많은 시점에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성별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해봄으로써 비행친구와의 교류, 자기통제력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서 0의 값이 많이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이며, 독립변수들과의 관계가 선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종속변수에서 0의 값이 많이 관찰될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시행하면 예측 결과에 큰 오차가 생겨 적합한 회귀모형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0값이 많아 종속변수의 분포에서 왜도가 크게 나타난다면 푸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0이 많더라도 회귀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값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변수를 변환하는 것 보다는 원 변수에 알맞은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는 푸아송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2013, 청소년 비행론 제 3판, 청목출판사.
- 김진욱, 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사회복지정책, 37(1).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 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박현수, 정혜원, 2010,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57.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8(2).
- 심미영, 정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1.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 이성식, 2011, 청소년비행에서 개인성향요인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조건적 효과 : 두 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2(4).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 연구, 31.
- 조주연, 김신영, 2010, 청소년 비행 결정요인 탐색: 자기통제력과 자기친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홍성훈, 김희수, 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 검찰청, 2014,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 통계청, 2014, 청소년 인구 통계.

- Agnew, R.,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29.
- Akers, R. L., Marvin D. K., Massey. J. L. and Skinner, W. F., 1985, Social learn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study, *Social problems*, 32(5).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Akers, R. L., 2008, Self-Control, Social Learning and Positivistic Theory of Crime, in *Out of Control: Assess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edited by Erich Good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rbara G. Tabachnick, Linda S. Fidell,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MA : Allyn and Bacon.
- Chapple, Constance.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 Deptula, D.P. & Cohen, R., 2004, Aggressive, rej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and adolescence; A comparison of their friendship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 De Kemp, R.A., Scholte, R.H., Overbeek, G. & Engles, R.C., 2006, Early adolescence delinquency: The role of parents and best friend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3.
- Fergusson, D.M., Vitaro, F., Wanner, B. & Brendgen, M., 2007, Protective and compensatory factors mitigating the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t behaviours during early

-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0.
- Fraser, Mark W, Kirby, Laura D, & Smokowski, Paul R. (2004).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NASW press.
- Gottfredson, M. 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ichael R., 2008, The Empirical Status of Control Theory in Criminology, Pp. 77 - 101 in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Vol. 15,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edited by Francis T. Cullen, John.
- Hay, Carter and Walter Forrest, 2006,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Examining Self-Control Theory's Stability Thesis*, *Criminology* 4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 Cai, L. (2007). Using heterosc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estimators in OLS regression: An introduction and software implementation.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709-722.
- Higgins, George E., Wesley G. Jennings, Richard Tewksbury, and Chris L. Gibson., 2009, *Exploring the Link Between Low Self-Control and Violent Victimization Trajectori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
- Hirschi, T., 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edited by Roy F. Baumeister and K. D. Vohs. New

York: Guilford Press.

- Jennings, W. G., Higgins, G. E., Akers, R. L., Khey, D. N. and Dobrow, J., 2013, Examining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Association on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oward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Deviant Behavior*, 34.
- Kleinbaum, D. G., & Kupper, L. L. Muller, kE., 1998,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ble Methods*. PWS-KENT, Boston.
- Krohn, M., 1999, *Social Learning Theory: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a Perspective*, *Theoretical Criminology* 3.
- Leona S. Aiken, Stephen G. West, & Raymond R. Reno.,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McGloin, J. M., and O'Neill Shermer, L., 2009, Self-control and deviant peer network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
- Meldrum, R. C., Young, J. T. N. and Weerman, F. M., 2009, Reconsidering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Implications of Measurement for Theoretical Signific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
- Paternoster, R., McGloin, J.M., Nguyen, H. & Tomas, K.J., 2013, The Causal Impact of Exposure to Deviant peer: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and Delinquency, 50(4).
- Pratt, T., Cullen, F., Sellers, C., Winfree, T., Madensen, T.,  
Daigle, L., Fearn, N. and Gau, J., 2010, The empirical  
status of social learning theory: A meta-analysis. *Justice  
Quarterly*, 27.
- Sutherland, Edwin.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 Turner, Michael G. and Alex R. Piquero., 2002,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 Warr, M.,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rbrough, A., Jones, S., Sullivan, C., Sellers, C. and Cochran, J.,  
2012, Social Learning and Self-Control: Assessing the  
Moderating Potential of Criminal Propen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6(2).

## 부록 1

<부표 1-1>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A	
		B	S.E(HC)
성별		.032*	.014
부모 교육수준		.005	.016
가족 유형		.072*	.02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17	.023
	400만원 초과	.023	.025
부모지도감독		.000	.003
비행친구 교류		.452***	.042
상수		-.022	
R <sup>2</sup>		.342	
Adj. R <sup>2</sup>		.337	
F		20.671***	

\*p<.05, \*\*p<.01, \*\*\*p<.001

<부표 1-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B	
		B	S.E(HC)
성별		.031*	.014
부모 교육수준		.008	.016
가족 유형		.073*	.0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015	.023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022	.025
부모지도감독		.002	.003
비행친구 교류		.436***	.043
자기통제력		-.005*	.002
상수		.071	
R <sup>2</sup>		.348	
Adj. R <sup>2</sup>		.342	
F		20.034***	

\*p<.05, \*\*p<.01, \*\*\*p<.001

<부표 1-3>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Model C	
		B	S.E(HC)
성별		.035**	.014
부모 교육수준		.007	.016
가족 유형		.075**	.0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15	.023
	400만원 초과	.024	.025
부모지도감독		.001	.003
비행친구 교류		.384***	.053
자기통제력		-.006*	.003
비행친구 교류 × 자기통제력		-.019	.010
상수		.065	
R <sup>2</sup>		.360	
Adj. R <sup>2</sup>		.354	
F		18.570***	

\*p<.05, \*\*p<.01, \*\*\*p<.001

## 부록 2

<부표 2-1>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I	
		B	S.E(HC)
성별		.027	.014
부모 교육수준		.005	.016
가족 유형		.036	.0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21	.021
	400만원 초과	.017	.024
	부모지도감독	-.001	.003
비행친구 교류		.181***	.041
상수		.010	
R <sup>2</sup>		.088	
Adj. R <sup>2</sup>		.081	
F		4.419***	

\*p<.05, \*\*p<.01, \*\*\*p<.001

<부표 2-2>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

		Model II	
		B	S.E(HC)
성별		.024	.014
부모 교육수준		.010	.016
가족 유형		.038	.0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023	.021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017	.024
부모지도감독		.002	.003
비행친구 교류		.150***	.040
자기통제력		-.010***	.002
상수		.197**	
R <sup>2</sup>		.120	
Adj. R <sup>2</sup>		.112	
F		5.911***	

\*p<.05, \*\*p<.01, \*\*\*p<.001

<부표 2-3>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Model III	
		B	S.E(HC)
성별		.028*	.013
부모 교육수준		.010	.016
가족 유형		.041	.0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024	.021
	400만원 초과	.018	.024
부모지도감독		.001	.003
비행친구 교류		.092*	.039
자기통제력		-.011***	.003
비행친구 교류 × 자기통제력		-.021*	.010
상수		.006	
R <sup>2</sup>		.142	
Adj. R <sup>2</sup>		.133	
F		5.577***	

\*p<.05, \*\*p<.01, \*\*\*p<.001

## Abstract

# Effects of Delinquent Peer Associ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self-control

Son, Young-m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factors that can prevent the juvenile delinquency occurrence and continuation, and by intervening the matter, to help the adolescent develop into healthy adult. Based upon the accumulated research, which is the primary factor of Social learning theor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ssociation to deviant peers is the most influential and consistent predict factor in terms of explaining the juvenile



delinquency. In reality, however, the nature of adolescence period makes it hard to cut off contact with problematic peers. For effective social work practice intervention,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by identifying the protective factor that can reduce the personal delinquent level, even during the association with the deviant peers.

Self-control has received as much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empirical literature as Social learning theory. In Self-control theory, self-control that is achieved in childhood should remain relatively stable and affects the individual's delinquenc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Control Theory, since the cause of delinquency is low self control, the other factors, such as deviant peer association, can not be granted. For these reason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learning theory and self control theory has been compared, and it has been processed to verify the empirical researches

Recently, even though the self control is under control, the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can be independently explained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relative stability of self control is shown changed through the effects of the deviant peers and learning process. Particularly, when the effects of the deviant peers persist, it was found out that low self control group is changed greater than high self control group.

Accordingly, based upon the resilience conception, this study is to figure out how the moderate effects of self control affect the juvenile delinquency as a protective factor.

Therefore, for this matter,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 (1)How does the level of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affect the level of personal delinquency? (2)How does the level of self control affect the level of personal delinquency? (3)Do the self control for moderate effects of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buffer the effect of the risk factor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used data from wave 8<sup>th</sup> Seoul Child Panel of 970 cases and statistical significant test through multiple liner regression.

Firstly, under control of control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statistically signify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re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the more deviant experience they have.

Secondly, sex and family type statistically signify the juvenile delinquency in control variables. The delinquent experience of male adolescence is more frequent than that of female adolescence, and the delinquent experience of single parents is more frequent than that of normal one.

Thirdly, the influence of self control statistically signify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lower self control, the more deviant experience they have.

Finally, self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viant peers association and personal delinquent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self control, the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influences the personal delinquent experience. A adolescent who has lower levels of self control tend to be highly influenced by the deviant peers and tend to be deviant adolescent.

In conclusion, this study all confirms that the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affect the level of personal delinquency, the level of self control affect the level of personal delinquency, and the self control for moderate effects of association to the deviant peers buffer the effect of the risk factors.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deviant peers, self control, moderate effect, resilience

**Student number** : 2012-22945